

교회다. 그러므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義)와 인(人)과 신(信)이 무르익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시무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두려움과 떨리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목회하여야 한다. 목회자는 요한계시록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인 목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 21세기의 한국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의 전망

김 광 석  
(목사, S.F.C 간사)

### 1. 들어가면서

21세기의 교회와 학생신앙운동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적인 당혹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학생신앙운동에 몸 담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21세기의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학생신앙운동을 논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젊은 목사로서 21세기의 교회를 전망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륜이 없는 나에게 이 글을 맡기는 것은 단순한 경험적 입장보다는 한국교회와 학생신앙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원리의 입장에서 글을 쓰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 2. 파라처치(Para-church)운동으로서 학생신앙운동

파라처치운동이라는 말을 하면 교회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부 선교단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파라처치이기 때문에

무언가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대립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선교단체에서는 또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학생신앙운동을 논함에 있어서 파라체치운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파라체치, 혹은 파라체치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연합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방편이라고 말하고 싶다. 즉 지상의 교회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초대 교회조차도 지상교회의 상대적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상교회의 절대적 모범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아래에서 본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영광스런 구속의 사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린도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며 영광스런 교회이다. 이것은 교회를 위에서 본 입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교회를 거룩하다고 칭하나 실제에 있어서 역사상 교회는 항상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시간 세계 속에서 항상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고착화시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대마다 개혁되어야 하며 개혁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교회의 연합성의 입장에서 파라체치, 혹은 파라체치운동의 존재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즉 파라체치운동이란 교회의 대립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상호보완적개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파라체치운동으로서 학생신앙운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교회론적 원리이자, 지상 교회를 보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 3. 개혁주의적 선교단체로서의 학생신앙운동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왜 많은 파라체치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신앙운동을 고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강령에 나타난 대로 한국신앙의 선조가 순교의 피를 흘려 가며 우리에게 남겨 준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선교단체를 신학적 사상을 중심으로 나누면 대체적으로 4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현대 신학에 근거한 선교단체이다. 또 하나는 요즈음 학원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단적 사상에 근거한 선교단체이다. 세번째는 선교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한 복음주의에 근거한 선교단체이다. 이들은 복음전도와 '제자 삼기', 혹은 세계선교에 주력하는 단체이다. 학생신앙운동도 이 부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물론 이러한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결코 간과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학생신앙운동은 철저히 개혁주의신학에 근거한 선교단체이다. 개혁주의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려는 신학사상이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명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통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거나 그것이 중생치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속경륜을 따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구속경륜을 따라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현대신학의 잘못은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을 간과한 것이며, 단순한 복음주의의 잘못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과 교회 중심성을 간과한 것이다(우리의 생활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교과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려는 것이다(학생신앙운동의 교과과정은 3단계 7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예배와 교제의 2과정이 있다. 2단계에서는 복음전도와 성품과 생활, 제자양육의 3과정이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헌신과 섬김, 그리고 개혁과 도전이라는 2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4번째 부류는 학생신앙운동과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다.

#### 4. 21세기 한국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의 전망

##### 1) 교회연합운동과 학생신앙운동

21세기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보는 세기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교회의 통일성, 혹은 연합성의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개교회주의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개체 이기주의'를 창출해 내고 있지 않

은가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전체의 통일된 모습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체 교회간에도 성장 지향적인 경쟁의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박도호 교수는 한국교회 개혁의 1차적 요건은 '교회의 통일성의 회복'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교회의 성경적 교회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요17장 뿐 아니라, 에베소서 등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엡 1:10). 그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시려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의 21세기의 한국교회의 교회연합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연합운동의 중추적 연합을 S.F.C가 담당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연합운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거부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것이 WCC와 같은 에큐메니칼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에큐메니칼운동은 교회의 신앙고백은 무시한 채, 교회의 제도적 하나됨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연합운동이란 신앙고백 일치운동이 되어야만 한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것이 신앙고백이다. 즉 성경적 바른 진리에 대한 고백없이 단순한 종교적인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여러 교파가 있지만 교파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 신학교에서 가르키는 신학의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개체교회 안에서의 실질적인 신앙형태는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되다가 한국교회가 무속종교화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 예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대한 일치된 신앙고백이 그 기초가 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바른 신앙고백을 가르키는 것이 학생신앙운동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 S.F.C 강령이 있다. 또한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서가 있다. 그래서 동·학기 수련회로 모일 때마다 이러한 강령과 신앙고백을 기초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에 나타난 신앙고백적 일치가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개혁주의적 이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즉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S.F.C가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앞으로 S.F.C가 해야 할 일은 개혁주의에 대한 이념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같이 교회연합운동은 신앙고백적 일치운동을 통해서, 또한 개혁주의 정신을 심어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두번째로, 교회연합운동은 S.F.C가 교회를 전문적으로 돕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합운동은 S.F.C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 뿐 아니라, S.F.C가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특히 S.F.C가 당장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역이라면 교회 대학부를 도우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S.F.C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대학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원에서 적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교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S.F.C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필요로 할 성경공부에 대한 자료나 역량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개체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자료가 공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앙과 전공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직업관과 세계관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가 공급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이나 리더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어지고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S.F.C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S.F.C는 파라체치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무엇보다도 간사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분야별로 간사의 전문화를 살려 공동체적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S.F.C가 이렇게 할 때 S.F.C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 2) 대안적 교회와 학생신앙운동

하워드 A. 스나이더는 21세기 교회의 전망에서 21세기의 교회는 제도적 전통주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단순히 제도적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펼쳐진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 보편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종교다원주의 또는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고찰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되 중생치 못한 세상사람 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의 현실참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필요성을 심어 준다. 즉 중생치 못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기관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초월 대립

적 관계이거나 아니면 동화적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적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변혁적 관계, 또는 대안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속에서는 직접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세상의 공동체에 대한 대조사회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제도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철저한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계문명과 비인격적 문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 철저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는 노아 언약의 규례를 따라 환경문제와 문화 보존의 사역에도 동참해야 하는 역동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란개혁주의 교회처럼 교회가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원받은(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약자의 편에서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영원하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세상 봉사의 사역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낙관론은 결코 아니다. 요컨대,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행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학생신앙운동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실상 위와 같은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라는 이름으로 학생신앙운동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

고 전문적인 또는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학생신앙운동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사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치는 점도 바로 이것이다. 원론은 알겠는데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간사의 장기적 사역과 전문화인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학생신앙운동본부와 교회가 전문적 간사를 배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과 연구를 위한 배려들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 론

21세기의 한국 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을 전망하면서 사 6장에서 이사야가 바라본 광경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과 주권자이심과 우리의 교회의 주이시라는 사실이다. 21세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